

장성한 그리스도인을 위한 큐티



창세기 3 주사 (2:1~8)

(2016년 1월 10일 - 2016년 1월 16일)

(제 4 권 4 호)



장성한 그리스도인을 위한 큐티 **B2B** 제 4 권-제 4 호

창간일: 2014 년 11 월 2 일

발간일: 2016 년 1 월 10 일

발행처:  B2B Missions

800 Roosevelt, Irvine, CA 92620

[www.b2bm.org](http://www.b2bm.org)

#### 인용성경

한글성경: 대한 성서공회에서 출간한 개역한글

헬리어 성경: Deutsche Bibelgesellschaft, D-Stuttgart 에서 출간한 Greek New Testament 4<sup>th</sup> edition (1993)

히브리어 성경: Deutsche Bibelgesellschaft, D-Stuttgart 에서 출간한

BIBLIA HEBRAICA STUTTGARTENSIA (1997)

#### 번역 및 해설

편집책임: Steve Kim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D.Min Program, Talbot School of Theology)

편집위원: Sean Roh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Th.M, Gordon-Conwell Theological Seminary)

Charlie Cho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Th.M, Talbot School of Theology)

이 큐티 자료는 회원 여러분들의 작은 정성으로 만들어 집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파하는 힘이 됩니다. 일주일에 1 볼 (한국 약 1000 원) 이상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을 원하시는 분은 B2B Missions 의 홈페이지 ([www.b2bm.org](http://www.b2bm.org)) 를 방문하셔서 회원으로 가입해 주십시오.

이 책에 수록된 원어해석과 해설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한 해석에 대한 아이디어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회원들에게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Copyright © 2015 by B2B Missions.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은 저자의 고유한 아이디어를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의 인용 또는 전제시 반드시 B2B Missions 또는 저자의 허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완성과 쉼 (주일)

## 오늘의 본문 (창 2:1~3)

- (1 절)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이 다 이루어졌습니다(וַיְכַלֵּם הַשָּׁמַיִם וְהָאָרֶץ וְכָל-צְבָאָם)
- (2 절)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그가 행했던 일들을 마쳤습니다.  
(וַיְכַל אֱלֹהִים בַּיּוֹם הַשְּׁבִיעִי מְלַאכְתּוֹ אֲשֶׁר עָשָׂה)  
그는 일곱째 날에 그가 행했던 모든 일로부터 안식하였습니다.
- (3 절)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복을 주시며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습니다.  
(וַיְשַׁבֵּת בַּיּוֹם הַשְּׁבִיעִי מְכַל-מְלַאכְתּוֹ אֲשֶׁר עָשָׂה)  
(וַיְבָרֶךְ אֱלֹהִים אֶת-יוֹם הַשְּׁבִיעִי וַיְקַדְּשׁ אֹתוֹ)  
왜냐하면, 그날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며 행하신 모든 일로부터 안식하셨기 때문입니다.  
(כִּי בּוֹ שָׁבַת מְכַל-מְלַאכְתּוֹ אֲשֶׁר-בְּרָא אֱלֹהִים לַעֲשׂוֹת)

## 묵상을 위한 이야기

한 젊은이가 있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인간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사명을 지니고 태어났다.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70년대 한국인들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사명이다. 그는 이 땅에서 그가 해야 할 사명들을 하나 하나 완수해갔다. 그 사명이 워낙에 엄청나다보니 그가 하는 일은 보통 사람이 하는 것과는 스케일 자체가 남달랐고, 그의 가르침은 상상을 뛰어넘는 파격 그 자체였다. 자연스레 수많은 팬들이 생겨났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다. 반면, 이런 그의 인기에도 반비례해 그 당시 기득권을 누리고 권력을 행사하던 사람들은 점점 더 입지가 초라해지고 급기야는 그 실체가 만천하에 폭로되기 시작했다. 그들이 갖고 있던 권위는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현신짝 처럼 여겨지기 시작했다.

당시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어떤 짓이라도 해야 했다. 우선 그 젊은이가 갖고 있는 힘이 눈속임에 가까운 사술이며, 그의 가르침은 너무 급진적이고 도발적이어서 공동체 전체를 위협에 빠뜨릴 수 있다는 생각을 백성들에게 주입하려 했다. 하지만 그들의 노력은 번번이 수포로 돌아갔다. 결국 그들은 그 젊은이를 제거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마침내 결행하게 된다. 그들은 한 주의 여섯째 날, 게다가 유월절 예비일에 그를 공개 처형하기로 했다.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의 말로가 어떤건지 본보기로 삼고자 함이었다. 처형 장소는 동문 밖 ‘해골’(골고다)이라는 언덕이었다. 사람들은 지형이 해골처럼 생겨서 그런 이름이 붙여졌다고 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그곳이 수많은 사람들이 처형당한 장소라 많은 해골들이 나뉘어져서 그런 이름이 붙여졌다고 말하기도 한다. 여하튼 기분 나쁜 이름임에는 틀림없다. 고통스럽게 나무 위에서 죽어가던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있다.

“다 이루었다”(요 19:30).

헬라이어로는 ‘테텔로스타이’(τετέλεσται)이고, 히브리말로는 ‘쿨라’(קָוָה)다. 쿨라와 같은 어근을 쓰는 히브리 단어가 가장 처음으로 등장하는 곳이 공교롭게도 창세기 2장 1 절이다. 하늘과 땅과 세상 만물

이다 완성되었다. 여기에 쓰인 히브리 동사의 용법이 푸알(Pual)인데 이는 행동이 매우 거칠고 강하며 장엄한 상황을 나타내는 피엘(Piel)동사의 수동형이다. 이리저리 흩어지며 죄층우물하던 것들이 순간 강력한 힘에 의해 제자리로 돌아가 질서를 잡은 모습이다. 창조란 무질서에 질서를 붙여 넣은 하나님의 역사다. 그 역사가 마무리 되는 순간을 ‘온전,’ ‘완전’을 의미하는 과라 (קָרָא)라는 동사로 시작하여 기술했다. ‘다 이루었다! 그 모든 창조를!’ 이 선언은 창세기 1장 1절의 창조 선언과도 맞먹는 위대한 선언이다. 시작만큼이나 마무리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창조 선언의 주체는 엘로힘이다. 엘로힘이 창조를 시작하셨고, 엘로힘이 마무리하셨다. 그런데 창조가 마무리 된 시점에 엘로힘은 그 모습을 감추신다. 창세기 2장 1절의 주어는 엘로힘이 아닌 하늘들과 땅과 모든 만물들이다. 하나님은 모습을 감추셨다. 원하는 대로 질서가 잡히고 각각 제 자리에 위치하여 자신들에게 부여된 사명을 다하는 피조물들의 모습만 보인다. 하지만 민감한 독자라면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들을 보듬고, 질서를 세워 놓고, 깔끔하게 마무리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기운이 느껴질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창조의 주체시다.

일곱째 날, 창세기 기자는 늘 반복되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말을 더 이상 적지 않았다. 창조 기록에서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바이오메르 엘로힘’ (בְּיוֹמֵי אֱלֹהִים)라는 말이 반복된다. 피조물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만으로 피조물이 존재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명령을 받아 존재했다. 그런데 일곱째 날은 늘 하시던 그 명령이 없다. 더 이상 창조를 위한 명령이 필요없기 때문이다.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은 여섯째 날까지 계속 반복되던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다는 기록도 없다. 이는 더 이상의 창조는 없다는 것과 그 모든 창조가 온전히 마무리 되었음을 암시한다.

인간은 여섯째 날 창조되었다. 여섯째 날 창조된 피조물은 인간뿐이 아니다. 땅 위의 동물들, 가축들도 창조되었고 인간도 창조되었다. 인간을 창조하신 후 인간들에게 식물을 먹을 것으로 주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보고 매우 흡족해 하셨다. 그리고 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다. 모든 창조가 끝난 후 드디어 일곱째 날이 되었다. 안식일이다. 인간들은 맨 마지막에 창조되었기에 하나님의 창조사역에 관여할 수 있는 기회가 털끝만큼도 주어지지 않았다. 인간들이 존재하자마자 안식이 시작되었다. 인간이 무엇을 해서 안식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시기 때문에 인간도 안식하는 거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인류를 위한 모든 사역이 마무리 되셨음을 아셨다. 바로 그새 창조의 마무리 선언이 “다 이루었다”였다. 첫 창조에서도 그러했듯이 새 창조, 구원의 과정에도 인간은 철저하게 수혜자일 뿐이다. 예수님이 만든 그 의를 그저 받기만 하면 된다. 구원은 인간들의 어떠한 행위도 기여할 여지조차 박탈한다.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선물이다. 구원의 완성을 위해 우리가 뭔가를 협력하지도 않았고 협력할 수도 없다. 그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구원이라는 새 질서 속에 편입된 스스로를 발견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

## 묵상을 위한 질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 지금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나요? 그분이 당신을 위해 이루신 모든 것 안에서 당신은 진정한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까?

# 일곱, 그 거룩함이 대하여 (월요일)

## 오늘의 본문 (창 2:1~3)

### 묵상을 위한 이야기

‘뜨리스카이데카포비아’란 말이 있다. 셋(Tris), 그리고 (kai), 열(deka), 공포증(phobia)다. ‘13을 두려워한다’는 의미다. 최후의 만찬 때 그곳에 모인 사람의 숫자가 열셋(예수님과 열두 제자)이었는데 그 중에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다. 게다가 하필이면 그날이 유월절 전날이었다. 유월절은 첫째 달(니산월) 14일이다. 따라서 그날은 13일인 셈이다. 예수 공동체는 예수님과 열두 제자가 핵심이었는데, 열둘 중 가룟유다가 늘 맨 마지막으로 불리웠다(마 10:2-5, 막 3:13-19, 눅 12-16). 훗날 사람들은 가룟유다를 열세 번째 인물로 묘사한다. 그 때문에 13은 한 마디로 재수없는 숫자가 되었다. 하지만 사도들이나 초대 교회에서 13을 두려운 숫자로 여겼다는 증거는 없다.

13이라는 숫자가 악운을 부르는 서양의 숫자라면 동양에서는 4라는 숫자가 있다. 빌딩의 엘리베이터 4층을 4로 쓰지 못하고 대신 F로 쓰는 곳이 많다. 서양에서 13층이 없는 경우가 많듯이 어떤 빌딩은 아예 4층이 없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숫자에 관련된 편견은 수많은 이야깃거리를 만들어 낸다. 어쩌다 13과 관련된 날짜나 장소에서 큰 사건이라도 발생하면 마치 그 숫자 때문에 그런 사건이 발생한 것처럼 호들갑을 떨기도 한다.

사십 년 간의 광야의 삶을 뒤로하고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라는 요새를 만났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은 강한 전투력이나 군사 기술이 아니었다. 단지 13이라는 숫자가 필요했다. 하나님이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지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붙였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번씩 돌되 열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 칠일에는 성을 일곱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수 6:2-5).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 6일 동안은 매일 한번씩 총 여섯 번을, 일곱째 날은 일곱번을 돌았다. 그들이 여리고성을 돈 횟수는 모두 합쳐 13번이다. 한편 제사장 일곱, 일곱 양각, 칠 일에서 공통점은 ‘7’이다. 따라서 여리고성 함락은 하나님의 완전수로 알려진 ‘7’이 13을 완벽하게 제압한 싸움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얼마나 흥미로운가? 게다가 제법 그럴 듯하지 않은가?

하지만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하다는 점을 미리 알려주고 싶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숫자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말한 데는 이유가 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특정한 숫자를 통해 메시지를 전할 때도 있기 때문이다. 때로는 직접적으로 숫자를 명시하여 의미를 부여하기도 한다. 또 다른 경우는 문학적으로 반복되는 표현이나 시적 운율을 통해 특정한 숫자를 암시하기도 한다. 어쨌든

성경 말씀에서 숫자를 무시할 수 없거나 더 나아가 반드시 숫자의 의미를 해석해야 할 때도 있다는 말이다. 창세기 2장 2절~3절에 나오는 숫자 ‘일곱’이 그 중의 하나다.

2절부터 3절 첫 부분까지 우리 성경은 이를 서술형 문장으로 풀어서 번역했지만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원래 세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게다가 이 세 구절은 서술형 문장이 아니라 일곱 단어로 이루어진 세 줄의 시다. 각 구절은 일곱 단어로 구성되어 있고 ‘일곱째 날’이 세 번 반복된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그가 행했던 일들을 마쳤습니다.

(וַיְכַל אֱלֹהִים בַּיּוֹם הַשְּׁבִיעִי מְלַאכְתּוֹ אֲשֶׁר עָשָׂה)

그는 일곱째 날에 그가 행했던 모든 일로부터 안식하였습니다.

(וַיִּשְׁבֹּת בַּיּוֹם הַשְּׁבִיעִי מְכַל-מְלַאכְתּוֹ אֲשֶׁר עָשָׂה)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복을 주시며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습니다.

(וַיְבָרֶךְ אֱלֹהִים אֶת-יּוֹם הַשְּׁבִיעִי וַיְקַדְּשׁ אֹתוֹ)

왜 굳이 일곱 단어로 세 줄인가? 이 시점에 생기는 이런 질문은 합리적이다. 창세기의 저자의 의도가 돋보이기 때문이다. 일곱은 신성하고 거룩한 느낌을 준다. 서양에서는 특히 그렇다. (동양은 거룩이나 신성보다는 행운을 강조하는 것 같음). 히브리어에서 일곱을 의미하는 ‘세마’(שֶׁמָּ)는 완전함, 성취함, 완수함, 등의 의미를 지닌다. 히브리인들은 ‘행운’보다는 ‘거룩’과 ‘성취’에 방점을 찍고 있다.

일곱은 히브리인들만의 전유물이 아니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 ‘칠’은 거룩과 신성을 의미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문헌에 등장하는 ‘칠’은 ‘신성’과 연결되어 나타났다. 성경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은 제 칠일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령하셨다.

“제 칠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와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육축이나 네 문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옛날 동안에 나 여호와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 칠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출 20:10-11).

결국 칠일은 하나님과 관련된 날이다. 하나님이 여섯 날 동안(이 6일은 하루를 24시간으로 해서 6일간 총 144시간을 의미는 것은 아니다) 일하시고 마지막 날 쉬셨다. 쉬셨다는 의미는 더 이상 할 일이 없다는 말이다. 계획한 모든 일을 완수하신 날이다. 일곱이라는 숫자가 거룩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따라서 일곱이라는 숫자가 의미를 가지려면 결국 하나님이 완수하신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어야 한다. 아직도 나에게 할 일이 남아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일곱째 날에 이르지 못했다. 은혜란 하나님이 온전히 성취하신 구원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때 비로소 제 칠일이 우리의 것이 된다.

##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복주시고 안식하신 일곱째 날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역을 자기가 완수해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온갖 사역을 하느라 분주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 ‘사바트’(שַׁבָּת) (화요일)

### 오늘의 본문 (창 2:1~3)

#### 묵상을 위한 이야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걷고 있었다. 그들이 밀밭 사이로 가게 되었는데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먹었다. 너무 시장했기 때문이다. 마침 그 광경을 지켜보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따지고 들었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마 12:2). 이게 끝이 아니었다. 이번에는 예수님이 직접 안식일에 논란거리를 만들고 말았다.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손마른 사람을 보고는 그 사람의 손을 고쳐 주셨다.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안식일을 대놓고 범한다고 생각하여 그를 죽이려는 생각을 갖게 된다. 안식일이 사람의 목숨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가장 많이 충돌한 문제가 바로 안식일 문제다.

도대체 안식일이 어떤 날이길래 시장해서 밀 이삭을 잘라 먹은 제자들을 문제 삼고, 안식일에 병을 고친 사람을 죽이려 했는가? 바리새인들의 이런 생각은 출애굽기에 기록된 모세의 율법에 근간을 두고 있다. 출애굽기 31 장 12 절부터 17 절에 안식일에 대해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명령하신다.

“<sup>12</sup>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sup>13</sup>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sup>14</sup>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 무릇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무릇 그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쳐지리라 <sup>15</sup> 옛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제 칠일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sup>16</sup>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sup>17</sup>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옛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 칠일에 쉬어 평안하였음이니라 하라”(출 31:12-17).

안식일을 어길 경우 처벌은 단 한 가지다. 죽음이다. 몇 대 맞고 끝날 일도, 한동안 감옥에 갇혀 있으면 될 일도 아닌 것이다. 안식일에 일을 하면 더 이상 생명을 유지할 수 없으며, 반드시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은 제자들을 적극 두둔하고, 더 나아가 직접 손마른 자를 고친 예수님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그런 생각을 갖는 것도 이해가 된다. 그것도 바리새인들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는 데서 마치 그들을 비웃듯 손마른자를 고쳤으니 말이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선언하셨다(요 5:17). 삼십팔 년된 병자를 고치신 날이 공교롭게도 안식일이였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예수님은 일부러 안식일을 골라서 그렇게 하셨다는 생각을 지을 수 없다. 이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더욱 죽이고자 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요지는 이렇다.

‘하나님의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나님의 진정한 쉼이 없는데 어찌 쉴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유대인뿐 아니라 오늘날 성경을 읽는 우리들조차 헛갈리게 만든다. 창세기 2장 2~3 절은 하나님의 안식 선언이다. 출애굽기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쉬셨다고 하셨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실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그런데 느닷없이 하나님이 아직도 일하고 계신다니 이 무슨 얼토당토 않은 말인가?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안식의 진정한 의미를 묻고 계신다. 안식이 무엇인가? 안식은 잠시 일을 멈추고 쉬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쉼이란 두려움, 근심 등으로부터의 완전한 해방이다. 그렇기에 진정한 쉼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 솔로몬이 말했다.

“사람이 해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고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니 이것도 헛되도다”(전 2:22~23).

인간에게 있어 안식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역설로 들린다. 히브리서 저자는 인간을 “죽기를 무서워 하므로 한평생 매어 종 노릇하는 모든 자들”이라 표현했다(히 2:15).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얻지 못한 모든 사람들을 빗대어 말한 거다. 그렇다면 인간들은 왜 안식하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 아직도 스스로의 힘으로 뭔가를 이룰 수 있다는 내적 욕망 때문이다. 그것이 쉼을 빼앗아 간다. 신앙인들은 하나님 앞에 들고 갈 뭔가를 해내기에 분주하다. 이런 사람들은 더 이상 자신들이 할 일이 아무 것도 없음을 깨닫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안식은 인간들이 잠을 내어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쉼을 허락할 때 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신 말에는 우리 인간들이 더 이상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과 ‘안식일’을 구분하지 못했다. 진정한 안식은 모든 일이 끝났을 때, 즉 해야 할 어떠한 일도 남아 있지 않을 때 온다. 그렇기에 인간 스스로는 결코 안식을 맛볼 수 없다. 안식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만 가능하다. 예수님은 안식일 논쟁을 하기 전 안식의 의미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 11:28).

안식인가? 안식일인가? 안식일을 강조하는 사람은 반복되는 ‘애씀’에서 도무지 벗어날 길이 없다. 진정한 안식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같이 자기 일을 쉰다(히 4:10 참조). 그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

모든 창조가 끝났다. 하나님은 모든 창조를 마무리하시고 쉬셨다. 그리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거룩은 더 이상 할 일이 없음을 의미한다. 온전함, 완전함이다. 그런데 그 완전은 쉼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을 통해 완전을 가르치셨다. 더 이상 할 일이 없음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거룩함에 이를 수 없다. 실제로 온전히 쉬어야 거룩함에 이른다. 일곱째 날이 거룩한 이유는 그런 쉼을 실제로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모든 창조의 일을 마치고 안식하셨다. 우리에게 남은 일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해 오던 모든 노력들을 내려 놓고 하나님이 완성하신 그 창조를 겸허히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것이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구원을 경험하는 것이고 진정한 쉼을 누리는 것이다.

##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이 생각하는 진정한 안식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정말 진정한 안식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 톨레도트 (תולדות) (수요일)

### 오늘의 본문 (창 2:4)

(4 절) 이것은 하늘과 땅이 창조될 때의 일들입니다.(אֵלֶּה תּוֹלְדוֹת הַשָּׁמַיִם וְהָאָרֶץ בְּהִבְרָאָתָם)  
여호와와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בְּיוֹם עֲשׂוֹת יְהוָה אֱלֹהִים אֶרֶץ וְשָׁמַיִם)

### 묵상을 위한 이야기

창조에 관한 이야기는 하나님의 안식하심으로 마무리되었다. 이제부터 창세기 이야기는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로 진입한다. 창세기 2장 4 절은 매우 특이한 단어로 시작된다. 엘레 톨레도트 (אֵלֶּה תּוֹלְדוֹת). 개역 개정은 ‘내력’으로 번역했고, 영어 성경은 세대 (generation), 역사 (history), 설명 (account) 등으로 번역하고 있다. 대략적인 역사로 이해해도 좋을 듯하다. 톨레도트 (תולדות)라는 단어는 창세기에 13 번 등장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 열 개로 정리된다.

2:4	하늘과 땅의 창조에 대한 기록
5:1	아담의 후손에 대한 기록
6:9	노아의 후손에 대한 기록
10:1, 32	노아 아들들의 후손에 대한 기록
11:10	셈의 후손들에 대한 기록
11:27	테라의 후손들에 대한 기록
25:12, 13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의 후손들에 대한 기록
25:19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손들에 대한 기록
36:1, 9	에서의 후손에 대한 기록
37:2	야곱의 가족에 대한 기록

위의 내용을 보면 ‘톨레도트’(תולדות)는 한 세대 또는 한 그룹의 역사를 간략하게 정리하거나 나열한 것으로 이해된다. 어떤 ‘톨레도트’는 앞에 서술된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 정리하기도 하고 (2:4), 어떤 ‘톨레도트’는 수많은 후손들을 나열하기도 한다 (5:1). 어떤 ‘톨레도트’는 가족사를 간략히 설명하기도 한다 (37:2). 한편, 모든 톨레도트는 사람에 관한 기록이다. 오직 하나만 예외가 있는데 바로 2장 4 절이다. 하늘과 땅이 ‘톨레도트’의 대상이다. 이 때문에 2장 4 절을 창조기록의 맨 마지막 부분으로 보는 학자들도 많다.

인클루지오 (Inclusio)라는 문학적 기법이 있다. 샌드위치를 상상하면 된다. 각종 내용물을 안에 넣고 빵으로 밖을 감싸고 있는 샌드위치를 닮았다고 해서 샌드위치 기법이라고도 말한다. 아주 쉬운 예가 시편 8 편이다. 다윗은 이 시의 맨 앞 부분(1 절)과 뒷 부분(9 절)에 동일한 시구를 썼다.

1 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9 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리고 보면 성경 전체가 인클루시오(Inclusio)로 편집되어 있다. 창세기 1장과 2장이 창조와 무죄 상태의 유토피아를 그리고 있다면 계시록 22장 1절~5절이 새 유토피아를 묘사하고 있다.

만약 창조 기록을 샌드위치 구조로 본다면 (많은 학자들도 이에 동의 하고 있다), 2장 4절은 1장 1절과 짝이 된다.

-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 2장 4절: 이것은 하늘과 땅이 창조될 때의 일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이 거대한 우주만물의 시작을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단순한 선포로 시작해서 ‘이것들이 하늘과 땅이 창조될 때의 일들이다’라는 말로 끝맺는다. 일방적으로 시작해서 일방적으로 마무리한다. 독자들이나 듣는 사람들에게 어떤 여지도 주지 않는다. 이 복잡한 우주의 탄생을 불과 두 페이지 남짓한 글로 적어 놓고 받아들이라고 하니 누군들 의문을 품지 않겠는가? 하지만 앞서 창세기의 창조 기록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구구절절 독자들에게 설명할 목적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했다. 따라서 창세기 2장 4절의 설명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린다.

“이 우주 만물은 내가 창조했으니 그리 알아라!”

다만 2장 4절에서 발견되는 재미있는 문학적 표현 하나만 더 살펴보기로 한다. 저자는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고대 근동 지방에서 즐겨 쓰던 ‘카이 구조’ (Chiasitic structure)를 사용하고 있다. 단어나 문장을 헬라어 카이 (X) 처럼 배치했다고 해서 ‘카이 구조’라는 말이 나왔다. 우리말로는 ‘교차 배열 구조’ 또는 ‘교차 대구법’이라 부른다. 2장 4절의 대구를 찾아 보면 다음과 같다.

- A: 하늘과 땅 (הַשָּׁמַיִם וְהָאָרֶץ)
- B: 창조될 때 (בְּהִבְרָאתָם)
- B: 여호와 하나님이 만드실 때 (בְּיוֹם עֲשׂוֹת יְהוָה אֱלֹהִים)
- A: 하늘과 땅 (אֶרֶץ וְשָׁמַיִם)

이렇게 놓고 보면 1장 1절과 2장 4절이 샌드위치의 위 아래 빵과 같다는 가설은 설득력이 커진다. 1장 1절의 키워드는 하나님, 창조, 하늘, 땅이다. 2장 4절의 핵심 단어도 동일하다. 같은 단어로 시작해서 같은 단어로 마무리했다.

결국 창조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지금 이 세상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 의해 존재하게 되었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했고, 그들에게 복주시겠다고 하셨다. 이 이야기를 처음 들은 사람들은 이집트의 노예생활에서 벗어나 광야에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 모세는 그들에게 이 세상 창조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는 사실에 대해 들었다. 하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해 이스라엘을 택하셨다. 그렇기에 그들에게는 힘든 광야의 삶이 견딜만 했을 거다. 그들의 머릿속에 무엇이 있든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에서 몰살시키시 않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그들을 인도하시는 분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창조 기사는 의외로 매우 간단하게 끝난다. 하지만 짧은 만큼 강렬하다. 이 지구 상에 존재하는 모든 식물들이 명령 하나로 존재했고, 땅과 물은 하나님의 명령에 숨겨진 생명들을 밖으로 뱉어내었다. 우리가 믿는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도 바로 우리가 믿는 그분이 창조주라는 사실 때문이다. 그 하나님을 올바로 이해하는 순간 인간은 그 엄청난 힘 앞에 굴복하게 된다. 모든 의문은 사라지고, 모든 지성은 새로운 질서를 갖는다. 우리 안에 새창조가 시작되었다는 증거다. 당신은 어떠한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받은 놀라운 체험을 한 적이 있는가?

## **묵상을 위한 질문**

때로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에 당신은 그 과정을 어떻게 견뎌냈을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 비와 일, 그 고난의 싹들 (목요일)

### 오늘의 본문 (창 2:5~6)

- (5 절) 들의 모든 나무가 아직 땅에 있지 않았고 (וְכָל־עֵשֶׂב־הַשָּׂדֶה טָרָם יִצְמָח) 들의 모든 식물이 아직 싹트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כִּי לֹא־הִמְטִיר יְהוָה אֱלֹהִים עַל־הָאָרֶץ) 그 땅에서 일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וְאָדָם אֵין לְעֹבֵד אֶת־הָאֲדָמָה)
- (6 절) 그러나 안개는 그 땅에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וְאָדָם יִעָלֶה מִן־הָאָרֶץ) 그 안개는 그 땅의 모든 표면을 적셨습니다. (וְהַשָּׁמַיִם אֶת־כָּל־פְּנֵי־הָאֲדָמָה)

### 묵상을 위한 이야기

전 우주를 넘나들며 빛과 수많은 별들과 공간을 잡고 있던 카메라의 앵글은 이제 티끌만도 못한 어떤 한 행성을 주목한다. 무한의 공간과 그 공간과 공간 사이의 헤아릴 수 없는 별들을 지나 태양계의 아주 작고 초라한 지구라는 행성으로 카메라가 앵글은 돌아간다. 그곳에는 이미 수많은 수풀들이 자라나서 지구를 덮고 있었다. 바다에는 물고기들과 하늘은 창공을 나는 새들로 즐거운 하모니를 연출하고 있었다. 창세기 기록은 다섯째 날을 지나 여섯째 날로 접어들었다. 창조 마지막 날이다. 하나님은 먼저 땅에게 명령하신다.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창 1:24). 땅은 감추고 있던 생명들을 밖으로 토해내기 시작한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른다. 마침내 땅은 각종 동물들의 천국이 된다.

카메라 앵글은 다시 지구의 한 구석을 줌인하기 시작한다. 들판이었다. 아직 그곳은 생명의 창조가 미치지 못한 곳이었다. 아니 미치지 못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 따로 마련해 둔 공간이다. 그 공간을 ‘하사데’(הַשָּׂדֶה)라 부르는데, 우리 성경은 그냥 ‘들’로 번역했다. 엄밀히 번역하면 ‘열린 공간’을 말한다. 특별히 한계를 정하거나 경계를 두지 않은 공간을 말한다. 하나님은 이 특별한 지역을 비워 두셨다. 성경은 그 공간이 비어 있는 이유를 두가지로 설명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그 땅에서 일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5 절).

비를 내리지 않은 ‘땅’은 ‘하아레스’(הָאָרֶץ) 곧, 지구다. 사람이 일할 땅은 ‘하아다마’(הָאֲדָמָה) 즉, 토지다. 지구 전체에 아직 비가 오지 않았고, 토지를 경작할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그 땅은 여전히 황량한 상태로 남아 있었다. 참 묘한 기분이 든다. 아마도 ‘비’와 ‘일’이란 단어 때문일 게다. 창세기에서 ‘비가 내린다’는 표현은 딱 세 번 쓰였다. 비가 내린다는 히브리어 단어는 ‘마타르’(מָטַר)다. 2장 5 절을 제외한 나머지 두 번은 모두 심판의 언어로 사용됐다. 홍수 심판을 결행하시기 일주일 전, 하나님은 노아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지금부터 칠일이면 내가 사십 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창 7:4)

그렇다면 ‘마타르’가 쓰인 다른 한 군데는 어디일까? 유감스럽게도 소돔과 고모라 심판 때 쓰였다. 하나님의 천사가 롯과 그 가족을 끌어내어 소알이라는 작은 마을로 이끌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소돔과 고모라에 임했다. 성경은 그날의 끔찍했던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덮어 멸하셨더라”(창 19:24~25).

‘일’이라는 의미의 히브리어 ‘아발’ (אָבַל) 또한 고약한 느낌이 들기는 매 일반이다. 특히 이 ‘아발’이 토지를 의미하는 ‘아다마’와 함께 쓰이면 불길한 느낌이 확신으로 변한다. 창세기 초반에 ‘아발’은 토지인 ‘아다마’와 결부되어 네 번 등장하는데 (2:5, 3:23, 4:2, 4:12), 두 번은 아담과 함께, 나머지 두 번은 가인과 함께 쓰였다. 그 중 2장 5 절을 제외한 나머지 세 번은 모두 ‘저주’의 의미를 담고 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창 3:23).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 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던더라”(창 4:2).

“네가 밭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창 4:12).

‘마타르’든 ‘아발’이든 이 둘은 모두 긍정의 의미가 아니다. 심판이고 저주다. 실제로 ‘아발’은 ‘중’과 그 어근이 같다. 사실 아담이 본격적으로 그 근본된 토지를 갈게 되고, 땀을 흘려야 땅으로부터 얻은 결실을 먹을 수 있게 된 근본 원인은 죄 때문이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 땅의 생물들을 심판한 것도,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처럼 비가 내린 것도 모두가 다 죄 때문이다.

그런데 이렇게 해석해 놓고 보면 성경이 점점 더 난해해지기 시작한다. 천지 창조를 마무리하고 인간에게 초점이 맞추어지기 직전의 황량한 들판과 비와 일은 무엇이며, 게다가 이 모든 것을 아담과 연관지어 말하고 있는 것은 왜일까? 이 이야기 후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야기가 나온다. 그리고 이어지는 에덴 동산, 여자인 이브를 만드시는 일, 그리고 3장으로 넘어가면 인간의 타락이 시작된다. 얼마되지 않은 에덴에서의 삶을 뒤로하고 인간들은 죄와 심판이 반복되는 벗어날 수 없는 저주의 굴레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 그렇게 본다면 모든 시작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인간과 에덴이 만들어지기 전에 언급된 ‘비’와 ‘일’은 아담 이후 인류가 걷게 될 고난의 길을 미리 암시하는 복선이 아닐까?

## 묵상을 위한 질문

인간의 삶에는 기쁨과 즐거움도 있지만 반드시 수고와 고통이 있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목적으로 우리의 삶에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을까요? 그리고 그런 힘들고 고통스런 상황에서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 생명체가 된 아담 (금요일)

### 오늘의 본문 (창 2:7)

(7 절)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으로부터 나온 먼지로 사람을 만드시고,

(וַיִּצְרָךְ יְהוָה אֱלֹהִים אֶת־הָאָדָם עֹפָר מִן־הָאֲדָמָה)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 넣으셨습니다.(וַיִּנְפַח בְּאָפָיו נְשֵׁמַת חַיִּים)

그래서 그 사람은 생명체가 되었습니다.(וַיְהִי הָאָדָם לְנֶפֶשׁ חַיָּה)

### 묵상을 위한 이야기

빈들, 비도 내리지 않고 풀도 나무도 없는 황량한 빈들을 상상해 보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기 전 어떤 생명도 없는 광야같은 느낌이 들지 않은가? 하나님이 ‘하아다마’ (הָאָדָמָה)로부터 약간의 ‘먼지’를 취해서 사람을 만드셨다. 우리 성경은 히브리어 ‘아파르’ (עָפָר)를 ‘흙’으로 번역하고 있는데, 사실 ‘흙’ 보다는 ‘티끌’, ‘먼지’로 번역하는 것이 본래의 의미에 더 가깝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난 후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 즉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창 3:17-19).

저주받은 땅 ‘아다마’를 땀흘리며 노동을 하는 아담, 하지만 ‘아다마’는 쉽사리 열매를 허락하지 않는다. 저주를 받은 곳으로부터 나온 먹거리들은 아담의 기력을 하루하루 단축시킨다. 얼마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먼지들로 만들어진 육체는 생명을 놓아버린다. 더 이상 생명을 붙잡을 힘이 없기 때문이다. 생명을 놓아버린 육체는 다시 먼지가 된다. 먼지에서 왔으니 먼지로 돌아가는 것이 순리다.

왜 하나님은 인간을 하찮은 먼지로 만드셨을까? 세상에는 내구력이 좋은 물질들이 얼마나 많은가? 혹시 하나님은 처음부터 영생을 염두에 두지 않으신 건 아닐까? 우리는 하나님의 전지전능, 앞을 내다보는 능력, 세상 문물을 구관하시는 주권 등을 인정한다. 하지만 창조 기사 이후에 전개되는 이야기들을 보면 과연 하나님이 그런 엄청난 능력이 있는 분이 맞는지 의문이 들 수도 있다. 생각해 보라. 인간들의 타락에 앞서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던 ‘악’이 생겨나고, 사탄의 세력들이 준동하게 만들고, 세상의 모든 질서를 파괴하는데도 속수무책 당하기만 하는 하나님에게 그런 수식어들이 어울리거나 하겠는가? 어떤 이들은 ‘의심하지 말고 그냥 믿으라!’고 질타하기도 한다. ‘믿음없음’으로 찍히는 것 보다는 맹목적 믿음이라는 지우개로 수많은 의심을 지워버리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믿음의 성숙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일 지도 모른다.

먼지는 사라지고 흩어지는 것이다.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면 흙과 구분할 도리가 없다. 흙이 먼지고 먼지가 흙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먼지들을 모아 인간의 몸을 빚으셨다. 그리고 코에 살아있는 숨을

불어 넣으셨다. 그러자 그 아담이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수명을 다하고 흙으로 돌아갈 먼지 덩어리에 살아있는 숨을 불어 넣자 ‘네페쉬 하야’(נֶפֶשׁ חַיָּה)가 되었다. 살아있는 생명체가 된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원한 생명이 유한한 먼지에 갇혀버린 것이다.

먼지로 만들었지만 영생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다. 먼지로 만든 몸 그대로 영생을 할 수 있었는데 인간이 죄를 짓는 바람에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이다. 결국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는 욕망이 하나님의 계획을 망쳐버렸다는 말인데 사실 이 말에 선뜻 동의하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라고 말씀하셨으니 대놓고 아니라고 부인하기도 힘들다. 하나님이 아담이 이 세상에 존재하기 전 이미 우리를 택하신 사실을 감안한다면 (엡 1:4 참조), 먼지로 우리를 창조한 이유를 조금이나마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

인간의 죄 때문에 인간의 몸이 흙으로 돌아간다고 주장하는 분들에게 조금은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싶다. (이는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며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이 틀렸다고 말할 생각은 눈썹만큼도 없다는 점을 미리 말해 둔다.) 그분들의 주장에 의하면,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 먹은 이후에 ‘인간의 영생’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은 차질을 빚고 만다. 아담으로 인해 죄가 이 땅에 들어 올 것을 미리 아신 하나님은 이미 인간들이 결국 흙으로 돌아갈 것도 아셨다. 그리고 창세 전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계획까지 이미 세우셨다. 물론 인류의 구원 계획에는 구원받을 사람들이 느껴야 할 자기 실존에 대한 깨달음, 자신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의에 다다를 수 없다는 한계를 인식하는 것까지도 포함되어 있다. 우리가 먼지 뿐임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만드신 그 의로움에만 의존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하나님 편에서도 마찬가지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이 먼지에 있다. 하나님이 먼지로 인간을 만드셨으니 ‘먼지’에 불과한 인간들에게 무엇을 기대하시겠는가?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이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이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 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시 103:10~14).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창세 전에 이미 수립되었다면, 우리를 먼지로 만드신 이유도 하나님 스스로 우리를 향한 긍휼을 보이기 위함 아닐까? 인간이 죄를 지어 타락했다 하더라도 스스로 열심히 해서 뭔가를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충만해진다면 인간은 결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그렇기에 인간 스스로 자신이 먼지임을 자각하고 하나님도 인간이 먼지 뿐임을 아신다면 인간들 스스로의 힘에 의한 구원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기에 유한한 먼지 속에 영원한 생명을 불어 넣으신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인간을 창조하는 단계에서부터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지 않겠는가?

##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스스로를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시나요? 자신이 먼지에 불과한 나약한 존재임을 자각하는 것이 정말 은혜인가요? 아니면 그것은 말뿐이고 실제로는 자신이 능력있는 사람임을 인정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면동산 (토요일)

## 오늘의 본문 (창 2:8)

(8 절)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쪽에 있는 에덴에 동산을 일구셨습니다. (וַיִּטַע יְהוָה אֱלֹהִים גֶּן־עֵדֶן מִקְדָּם) 그는 그가지으신 사람을 그곳에 두셨습니다. (וַיִּצְרַח אָדָם וַיֵּאמָר אֵלֹהִים הֲאֵלֶּהָ עֵץ־חַיַּת־הַדַּעַת וְאֵלֶּהָ עֵץ־הַיָּדָעַת) )

## 묵상을 위한 이야기

여호와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남겨두었던 ‘하사데’(חַסְדֵי) 즉, ‘열린 공간’을 채우기 시작하셨다. 그 공간은 동쪽에 있었고, 에덴이라 이름하였다. 그리고 그곳에 아담을 두었다. 아담이 거주할 장소를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셨다.

에덴은 드넓은 장소를 말한다. 동산은 그 에덴 중 특별한 장소를 택하여 사람들이 살도록 한 곳이다. 흔히 ‘에덴 동산’이라고 부르는데 정확히 말하면 에덴에 있는 한 동산이다. 에덴이든 그 안에 있는 한 동산이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곳이 하나님의 동산으로 인식되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예비된 곳에 대해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찬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사 51:3).

사막이 광야이고 에덴은 여호와의 동산이다. 여호와의 동산이지만 아담을 위한 동산이기도 하다. 하나님께서는 에덴이니 여호와의 동산이니 하는 공간이 따로 필요치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담을 만들고 그를 위해 특별한 장소를 조성하신다. 기왕 창조된 넓은 공간을 전부 다 쥐도 될 일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드넓은 지구에 특별한 한 장소를 마련하여 인간을 만들기 전까지 비워 두셨다. 아담을 위해 일부러 에덴에 한 동산을 조성하신 것이다.

왜 그러셨을까? 그냥 인간을 위해 특별하고 멋진 선물을 준비해 주시면 될 텐데 말이다. 굳이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동산을 조성한 이후 전개되는 일들이 선물치고는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인간을 위해 준비한 ‘에덴’은 매우 사치롭고, 안락하고, 즐겁기까지한 장소다. 원래 에덴 (עֵדֶן)이라는 말의 뜻이 그렇다. 그런 에덴이 어찌다가 인간에게 도리어 가혹한 선물이 되었을까?

한 가지 가정을 해보자. 아주 부자인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비싼 승용차를 생일 선물로 사주었다. 아내는 그 차를 너무 아끼고 사랑했다. 소핑을 하든 여행을 하든 그 차만이 이용했다. 그런데 어느날 남편은 아내와 영원한 이별을 고해야 했다. 아내가 몰던 그 차가 거대한 화물 트럭과 정면 충돌을 해서 차는 완전히 망가지고 아내는 찌늘한 시신으로 돌아왔다. 사고의 원인은 장거리 운전을 하던 중 일어난 아내의 졸음 운전 때문이었다.



만약 남편이 생일 선물로 그사치스런 고급차를 사주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도 아내는 그렇게 끔찍하게 생을 마감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남편은 그렇다 치자. 전혀 앞일을 예측하지 못하는 인간이니 말이다. 그런데 하나님이라면 좀 달라야 하는 것 아닐까? 전지 전능한 하나님이 손수 만든 아담이 그를 위해 특별히 꾸민 그사치스런 정원, 에덴에서 어느 날 갑자기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는 일은 없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담을 위해 특별히 이런 정원을 조성하신 것은 어떤 연유에서일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데 인간들이 그 사랑을 몰라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말이다. 알다시피 하나님은 자신이 구원코자 하는 사람 하나 제대로 구원하지 못하는 나약한 분이 아니다. 언젠가 한국 최고의 지성으로 칭송받는 이어령 박사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다. 지성이란 누구와도 비견될 수 없는 그분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된 이야기였다. 그분은 지성으로는 다다를 수 없는 영성에 대해 이야기하셨다. 인간이 불가항력의 벽에 부딪치면 지성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사랑하는 딸과 외손자의 고통을 그가 가진 지성과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다. 결국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에덴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 놓을 ‘죄’의 싹을 이미 틔우고 있었다면 너무 앞선 생각일까? 에덴은 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다시 등장한다. 그 자리에는 수많은 아담들이 초대된다. 그 초대된 아담들은 한결같이 하나님 아들, 어린 양의 피로 거룩하게 되었다. 그 에덴에 들어간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뻗속까지 절절히 체험한 자들이다. 그것이 없이는 절대로 그 나라로 들어갈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첫 에덴에서 두 번째 에덴을 미리 볼 수 있게 된다. 아담은 어떻게 자신이 그 에덴의 풍요와 사치 가운데로 인도되었는지 모른다. 그가 죄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땀흘려 흙을 파기 전까지 그는 자신이 에덴의 주인이라는 사실에 도취되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사람들은 자신이 받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주어진 것인지 모르면 방종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죄로 인한 고통의 끝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에덴은 더 이상 사치가 아닌 은혜다. 하나님은 첫 에덴에 사람을 두심으로 두 번째 에덴을 이미 준비하신다. 죄로 인한 고통의 끝에서 은혜로 벗어난 사람만이 두 번째 에덴에 초대될 자격이 있다. 에덴에 들어갈 자신이 있는가? 그렇다면 자신의 자격없음을 먼저 깨달아야 하지 않을까?

##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첫 에덴을 경험했나요? 당신의 인생에서 기쁨과 풍요를 가져다 줬던 일이 도리어 화가 되어 고통과 슬픔으로 바뀌고 그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꿇은 적이 있습니까? 그 과정에서 당신은 무엇을 깨닫게 되었나요? 당신은 이제 진정한 에덴을 향해 나아갈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까?